ㅗ자형과 ㅜ자형 라이프스타일

(마28:1-10)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ㅗ자형과 ㅜ자형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ㅗ자형이라는 것은 한글의 모음 중에 있는 ㅗ, 그리고 ㅜ자형도 모음 중의 ㅜ, 완벽한 글씨로서의 오나 우가 아니라 모음만의 ㅗ, 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ㅗ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ㅜ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다.
신앙인으로서 ㅗ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고, 정말 바른 기독교신앙

인이라면 ㅜ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가장 우선적이고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말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의 의미를 이것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고, 두 번째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면 첫 번째의 의미도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두 번째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활적(復活的)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들의 삶은 부활적이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또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만약에 종말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의 일원인 교인들의 삶이 부활적이지 못할 때, 그 부활적이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심판과 멸망을 위한 부활만 있을 뿐이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부활적이라야 됩니다.
그 부활적인 삶이 ㅜ자형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ㄴ자형과 ㅜ자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ㄴ자형은 아래쪽이 실선으로 이어져 있고 위쪽을 향해서는 수직상승하는 선이 하나 있으면서 위로는 점이 만날 뿐입니다.
반대로 ㅜ자형은 위쪽으로 실선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선이 아랫부분과 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면 신앙인으로써 부활적으로 사는 사람과 전혀 부활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진을 보듯이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다들 아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인생을 체념한다거나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게을러터져서 삶의 과제를 등한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로 이어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도바울조차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보다 횟수로도 적게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제대로 죽으면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거나 소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주님과 연합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부활하시는 주님과 올바로 연합하여 부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언급의 횟수가 적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강조되고 제대로 죽으면, 부활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자체의 역사에는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ㅗ자형, ㅜ자형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형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의식적으로 잊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적인 열매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부활해야 되요.
그 얘기는 날마다 지진이 경험되고, 날마다 지진이 있고, 날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내가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 중에서 ㄴ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ㄴ자형은 아래가 실선입니다, 실선은 이어져 있는 선을 말합니다.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전혀 남의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제까지 아버지였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부모였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 이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라는 의식의 실선이 이어져나가고 있는 중에 자식과 씨름하고 엄마로써 아빠로써 자식문제를 걱정하고 하는 중에 마음이 위로 솟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때때로 점으로 찍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점선이 되고 이 땅 위에서 자식들과의 관계로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실선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게 ㄴ자형의 삶이에요, 이건 부활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자식과 갖는 부모로서의 관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일어나려면 지진이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진이 끊어진다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오늘 내일까지 지속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직장인도, 선생도, 변호사도, 장사하는 분도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관계는 지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내 마음에서 그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괜히 이유도 모를 강령입니까? 무슨 주문이나 주술 같은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뒤집어놓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이 땅에 매여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점선으로 찍혀요.
실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는 동안에 위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아침저녁으로 시간 날 때 가끔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점선으로 찍히게 됩니다, 점점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 부활적인 삶이 되려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가 계속 실선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 부활적인 lifestyle, ㅜ자형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빠로서도 엄마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한 계속해서 마음은 하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내 인격이고 그게 나인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선으로 이어져 갑니다.
모음 ㅜ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

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는 그 모양 그대로 이 세상의 관계는 다 끊어져버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자기에 싸여진 내 마음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아버지노릇 하게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인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 직장인노릇이 끝나면 곧바로 또 내 마음은 기도를 통하든 아니면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엄마다’라는 의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처럼 위에서 실선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형상을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실선의 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내가 아빠노릇 하는 것, 엄마노릇 하는 것, 직장인노릇 하는 것, 장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점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엄마노릇, 아빠노릇 하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이 찾았던 것처럼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아빠노릇을 점을 찍고, 엄마노릇을 점을 찍고, 아내와 남편노릇을 점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점 찍힘이 끝나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아,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결혼했으면 남편이고 아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역사를 분석하고, 과거에 이어진 현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패턴을 연구하면 미래를 점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 운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개인으로 치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속되면서 이 땅에서 내 의식 안에서 역사가 이어져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빠노릇 하는 게 점을 찍는 거예요, 아내노릇 하는 게 점을 찍는 거예요.
절대로 이어지는 실선이어서는 신앙인이 아니고, 부활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선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점을 찍으면서 아빠노릇 하고, 그 점찍는 일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빠노릇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아빠가 아닌 거예요.
나는 다시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가서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내려와 점을 찍는 거예요.
남편노릇도 마찬가지고, 아내노릇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내가 누구의 아내요 남편이라는 사실이 이어져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의식, 아내라는 의식이 내 의식 속에서 실선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인 사실이 이어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 속에서 이어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직장에서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것이며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사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ㅜ자형이에요, 내가 지속하고 내가 연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져 나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생각, 아내라는 생각, 아빠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관계의 실선적 유지와 연속과 지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로서 죽고, 아내로서 죽고,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죽고, 직장인으로서 죽고, 사업가로서 죽고, 교수로서, 박사로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육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다 그것들에 대해 다 죽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점찍으라고 내려 보낼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점찍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적인 삶이라는 얘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강조한다고 부활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죽음을 강조합니다마는 부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 부활이 따라오는 모습이 지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점찍으며 사는 것이고, 하늘에서 실선이 유지되는 ㅜ자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이 땅에서 맺은 관계가 안정육괴처럼 실선을 유지하고, 그것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선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ㅗ자형의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 부활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 부활적인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ㅜ자형의 부활적인 라이

프스타일을 영위하시면서 천사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지진이 일어나면서, ㅗ자형의 삶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땅에 대해서는 점을 찍으며 살아가는 ㅜ자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